

배포일시	2010. 12. 24.(금) 11:00 (총 10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태 장기예보관 박인태
		전화번호	051-718-0423

1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겨울의 중심, 한파·대설·강풍·풍랑·가뭄·건조에 대한 주의 필요 -

□ 1월의 기상특성

- 연중 가장 추운 시기로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찬 대륙성고기압이 확장 시 경남서부내륙지방은 눈이 자주 내림. 동해안지방은 북동기류로 인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기도 함.
-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육상에서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짐.
-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임.

□ 1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한파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로 건강관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보리 및 과수작물 동해, 연근해 양식장 피해,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 사전 조치 필요.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경남서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며, 남부지방 저기압 통과 시는 전 지역에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붕괴 예방 등 제설 대책 필요.

○ 강풍과 풍랑

찬 대륙고기압 확장 전면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강한 바람에 취약한 시설물(간판, 비닐하우스 등)의 사전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함.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높아지니, 해상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건조한 날씨, 가뭄

늦가을부터 줄어드는 강수량과 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해짐. 건조한 대기 속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남해안의 보리, 마늘, 대파 등 밭작물의 가뭄피해 예방에도 사전대비가 필요.

※ 첨부 : 1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1-718-0423, <http://www.kma.go.kr>

[첨부]

1월 기상재해 정보(부산·울산·경남)

- 연중 가장 추운 시기, 한파·대설·강풍·풍랑·가뭄·건조에 대한 주의 필요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2010년 12월 24일 11시 발표

□ 1월의 기상특성

- 연중 가장 추운 시기로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찬 대륙성고기압이 확장 시 경남서부내륙지방은 눈이 자주 내림. 동해안지방은 북동기류로 인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기도 함.
-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육상에서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짐.
-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임.

□ 1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한파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로 건강관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보리 및 과수작물 동해, 연근해 양식장 피해,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 사전 조치 필요.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경남서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며, 남부 지방 저기압 통과 시는 전 지역에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붕괴 예방 등 제설 대책 필요.

○ 강풍과 풍랑

찬 대륙고기압 확장 전면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강한 바람에 취약한 시설물(간판, 비닐하우스 등)의 사전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함.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물결이 높아지니, 해상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건조한 날씨, 가뭄

늦가을부터 줄어드는 강수량과 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해짐. 건조한 대기 속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남해안의 보리, 마늘, 대파 등 밭작물의 가뭄피해 예방에도 사전대비가 필요.

※ 붙임 : 1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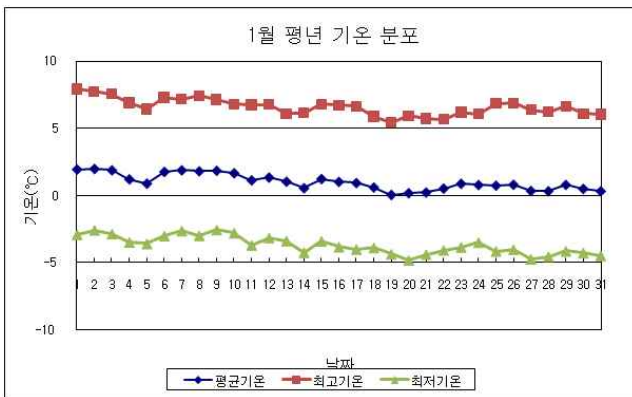
1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부산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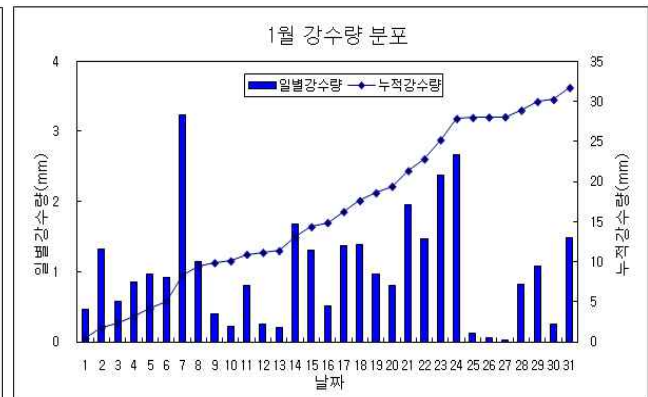
1. 1월 지역별 기온 및 강수량(평년)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지 점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평균기온	1.6	2.8	3.0	2.7	0.1	-1.8	-0.7	-0.2	0.0	1.9	1.7
최고기온	7.0	7.4	7.6	7.3	6.6	4.6	6.1	6.6	5.8	6.6	6.8
최저기온	-2.7	-1.1	-0.7	-1.1	-5.3	-7.4	-6.2	-6.0	-4.8	-2.4	-2.7
강 수 량	38.0	36.3	37.8	33.6	33.1	26.7	21.8	21.7	26.2	40.6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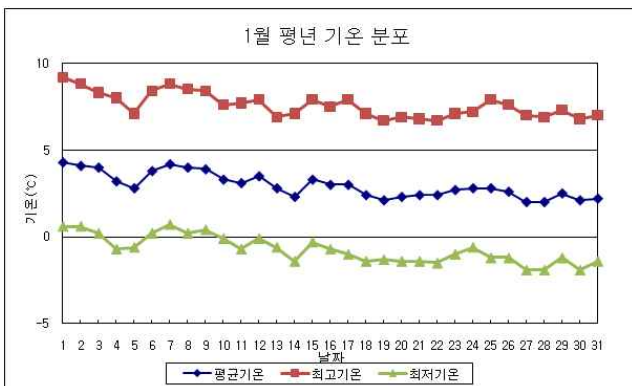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1월 일별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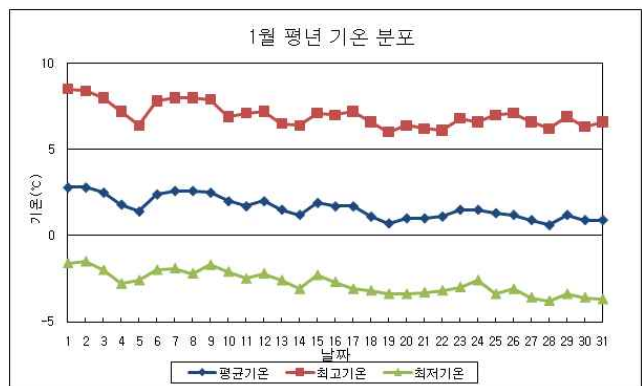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1월 평년 강수량

2.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기온(1월)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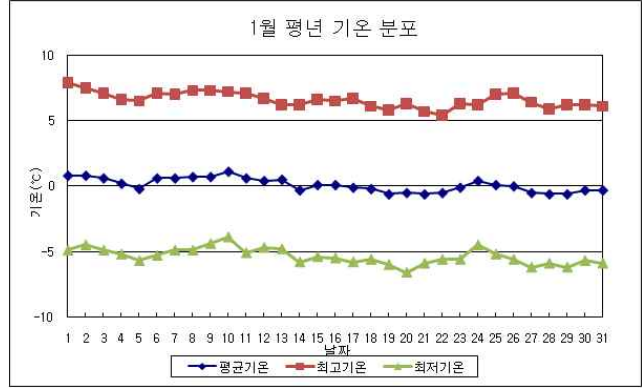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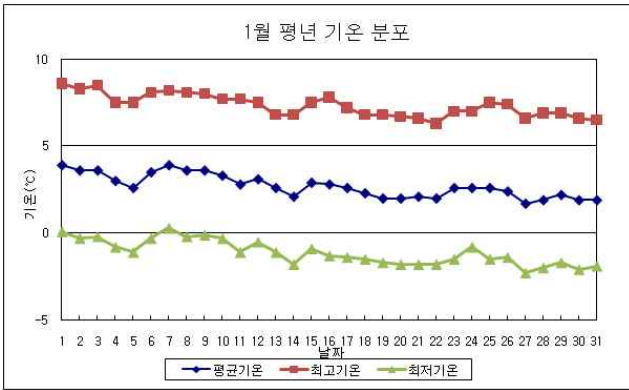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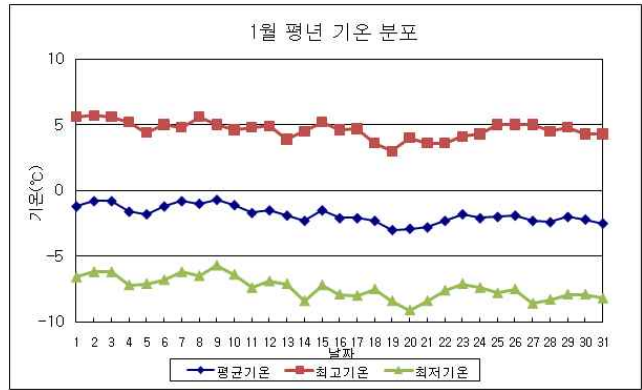
진주



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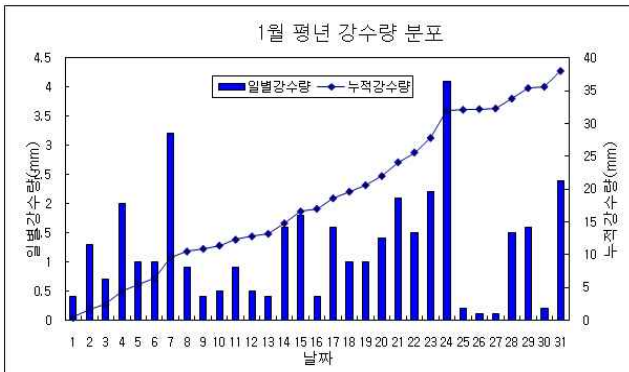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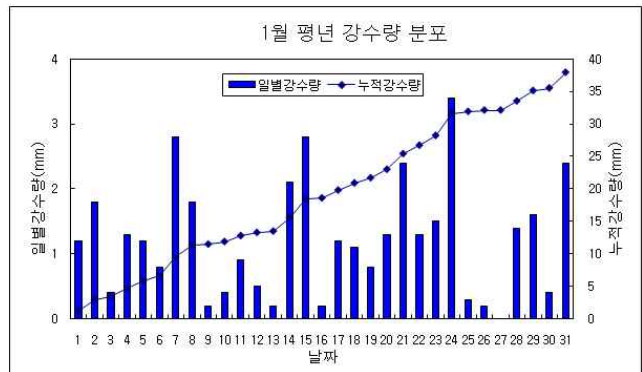


3.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 강수량(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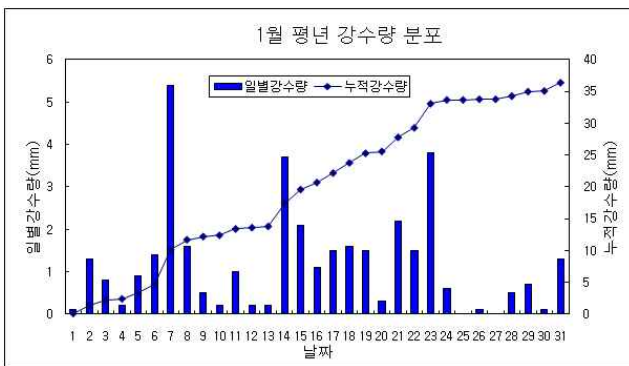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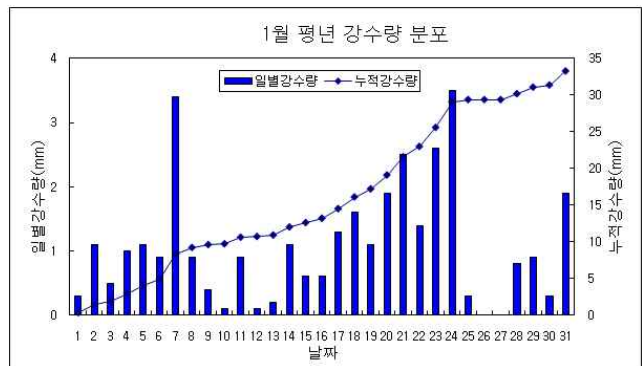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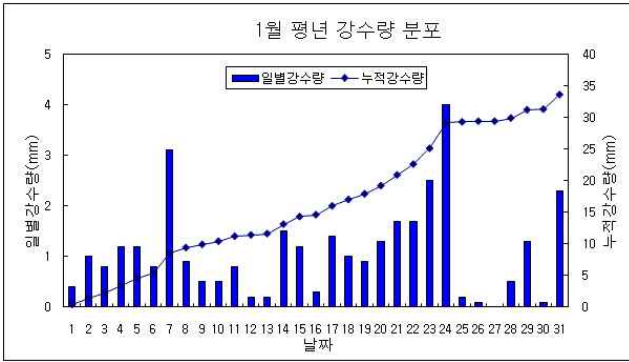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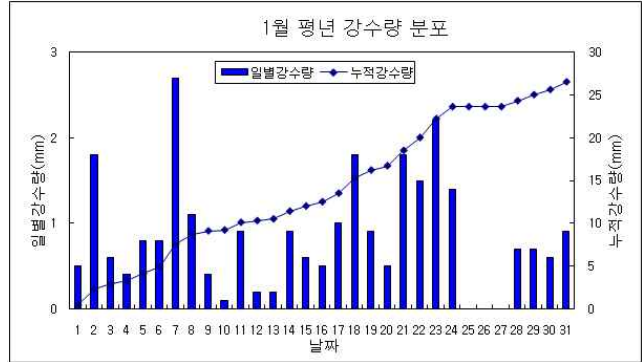
진주



통영



거창



4.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순별 평년값(1월)

○ 평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1월 상순	1.5	3.8	2.3	3.3	0.6	3.4	-1.1
1월 중순	0.6	2.8	1.5	3.0	0.0	2.5	-2.1
1월 하순	0.4	2.4	1.1	2.1	-0.2	2.2	-2.2
평 균	0.8	3.0	1.6	2.8	0.1	2.7	-1.8

○ 최고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1월 상순	7.1	8.3	7.7	8.1	7.1	8.0	5.2
1월 중순	6.2	7.4	6.7	7.4	6.4	7.2	4.3
1월 하순	6.2	7.1	6.6	6.9	6.2	6.9	4.4
평 균	6.5	7.6	7.0	7.5	6.6	7.4	4.6

○ 최저기온

단위 : °C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1월 상순	-3.2	0.1	-2.0	-0.6	-4.8	-0.3	-6.5
1월 중순	-4.2	-0.9	-2.9	-0.8	-5.5	-1.3	-7.8
1월 하순	-4.4	-1.4	-3.3	-1.9	-5.6	-1.7	-7.9
평 균	-3.9	-0.7	-2.7	-1.1	-5.3	-1.1	-7.4

○ 강수량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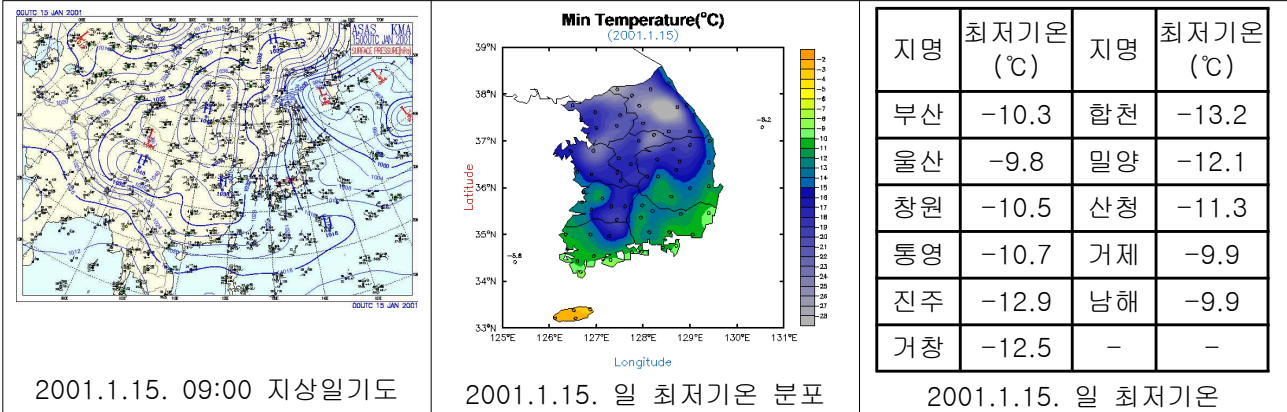
주요도시	경상남도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	거창
1월 상순	9.9	11.4	12.3	9.7	10.4	10.4	9.2
1월 중순	8.9	10.5	11.1	13.3	9.3	8.8	7.6
1월 하순	12.5	15.9	15.0	10.7	14.1	14.4	9.9
합 계	31.3	37.8	38.4	33.7	33.8	33.6	26.7

(평년기간 : 1971 ~ 2000년)

5. 기상재해 사례

□ 한파(2001년 1월 14일 ~ 16일)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한기가 남하하였으며, 대륙고기압이 화중지방에서 이동성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기압경도가 약해지고 바람이 없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지방은 밤사이 복사냉각을 받아 기온이 많이 하강함.



○ 부산·울산·경남지방 1월 평균기온 최저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창원	2001.01.15	-7.3	1986.01.05	-6.3	2001.01.14	-5.9	1990.01.25	-5.7	2001.01.16	-5.6
통영	1970.01.05	-6.2	2001.01.15	-6.1	1986.01.05	-6.1	1982.01.29	-5.5	1985.01.30	-5.4
진주	2001.01.16	-8.1	2001.01.15	-7.8	2004.01.22	-7.4	1985.01.29	-7.4	2001.01.14	-6.8
밀양	2004.01.22	-8.8	1990.01.25	-8.6	1985.01.14	-8.5	2001.01.15	-8.2	1986.01.05	-8.0
산청	1986.01.05	-8.1	1974.01.26	-8.1	1990.01.25	-8.0	1985.01.29	-8.0	2001.01.15	-7.9
거제	2001.01.15	-6.2	2004.01.22	-5.9	1986.01.05	-5.9	1977.01.31	-5.8	1982.01.29	-5.7
남해	2001.01.15	-6.6	1990.01.25	-6.1	2001.01.16	-6.0	1985.01.29	-5.8	2004.01.22	-5.7

○ 관련 기사

맑은 사먹고...세수는 생수로...빨래는 엄두도... 연일 강추위 고지대 '물고통'

수도관 얼어...일부는 저지대로 '피난'도

「양주위에 벌써 시냇물 얼어 난다. 이 물이 얼어는 경남 발원지대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1월 15일 오후 부산 서구 서대신동 구 덕산기차 꽃마을에 주민 임영순(54·57)씨는 이웃집의 호스를 통해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큰 드럼통에 담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해는 '저수지'가 얼어붙어 지난 1일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 물을 가져 오기 못해서 '이물 내외'와 손가락은 시어 저지대로 가는 곳으로 일단 '피난' 시켰다'고 말했다.

같은 해에 이따금 고지대인 꽃마을에 내리는 눈이 모든 주민을 제자로 시냇물 수도관 동결사태로 집안마다 라면 끓이고 물을 끓이고 있다. 또 산골에는 못물 강우위로 물을 길러서 못 이다리는 시냇이 거의 얼고 대부분 주민들은 집안에서 응급하게 얼어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마을의 이명우(70)씨(우수남)씨에게 부친은 단풍이 나는 11월 15일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자마자 라면을 해 두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전 가스스토브에 물을 끓이고 있다. 하지만 식수는 약수나 계곡물, 겨우 끓여 먹는 데는 캐러프라이를 끓여 물에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떨어진 산악은 이씨는 「이웃집은 강우위로 물을 가져와서 끓여먹는 생수로

「이웃집은 강우위로 물을 가져와서 끓여먹는 생수로...」

이때 주민 김동철(54)씨는 「발원지에 이미 얼어붙은 수도관을 고쳐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같은 상황이 없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어 강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서구 이대동 저지대로 알려진 200여세대 주민들은 수도관이 나오지 않는데도 상당수 세대가 불타는 불이 지어 붙어 얼어 내오는 가수와 물을 끓여먹고 있다.

이때 주민 김동철(54)씨는 「발원지에 이미 얼어붙은 수도관을 고쳐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같은 상황이 없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어 강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마을의 이명우(70)씨(우수남)씨에게 부친은 단풍이 나는 11월 15일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자마자 라면을 해 두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전 가스스토브에 물을 끓이고 있다. 하지만 식수는 약수나 계곡물, 겨우 끓여 먹는 데는 캐러프라이를 끓여 물에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떨어진 산악은 이씨는 「이웃집은 강우위로 물을 가져와서 끓여먹는 생수로...」

부산·경남 장기 혹한

내일까지 계속...1일부터 8일간 맹위

부산 경남지역의 날씨가 보기 드문 장기 혹한에 휩싸였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날씨는 11일과 15일에도 부산 경남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별로는 11일부터 8일간 맹위

이때 주민 김동철(54)씨는 「발원지에 이미 얼어붙은 수도관을 고쳐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같은 상황이 없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어 강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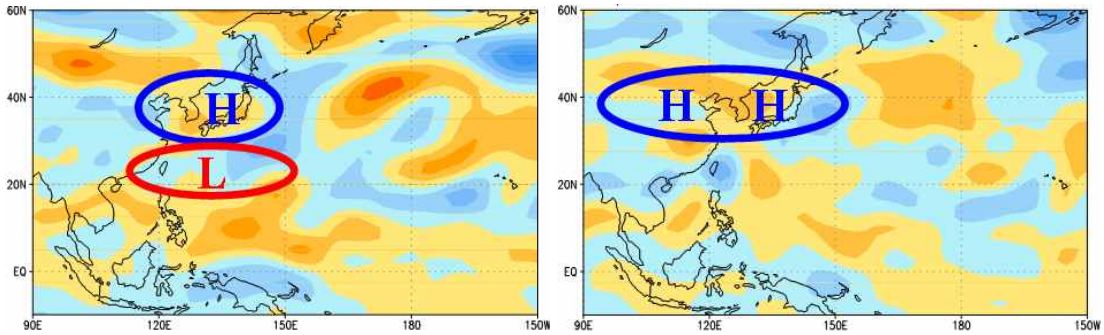
같은 마을의 이명우(70)씨(우수남)씨에게 부친은 단풍이 나는 11월 15일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자마자 라면을 해 두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전 가스스토브에 물을 끓이고 있다. 하지만 식수는 약수나 계곡물, 겨우 끓여 먹는 데는 캐러프라이를 끓여 물에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떨어진 산악은 이씨는 「이웃집은 강우위로 물을 가져와서 끓여먹는 생수로...」

2001. 1. 17. 국제신문

□ 가뭄 및 건조한 날씨(2008년 7월 ~ 2009년 1월)

- 2008년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북쪽으로 편재(偏在)하여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래 머물렀으며, 9~10월에는 동서고기압대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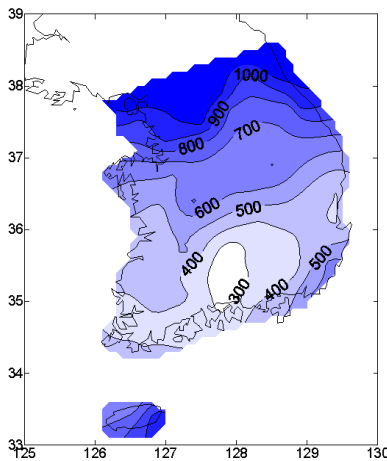


< '08년 7~8월의 기압배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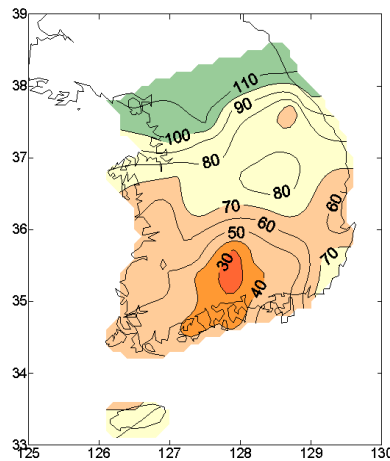
< '08년 9~10월의 기압배치 >

- 2008년 가을철 이후 기압골의 세력이 강하지 않으면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음.
- '08.7.1~'09.2.3까지 강수량은 211.0mm(거창)~1097.6mm(속초) 분포로 평년('71~'00, 848.9mm) 대비 68.2%를 기록하여 1973년 이후 3번째로 적었음.

2008년 7월 이후 강수량 현황('08.7.1~'09.2.3)



< 강수량 분포(mm) >



< 강수량의 평년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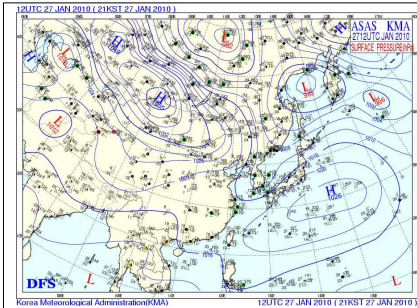
< 기간별 평년비 비교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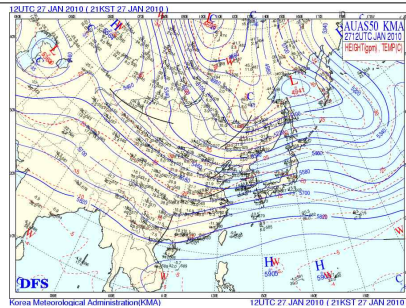
기간	산청	거창	남해	진주	고흥	여수	남원	전국
'08.7.1~'09.2.3	24.5	25.8	30.4	32.7	37.1	39.6	40.3	68.2
9.1 ~ "	18.3	23.5	24.3	30.9	32.4	34.9	25.0	48.1
11.1 ~ "	25.1	28.9	27.7	24.5	33.6	28.9	34.5	51.6
12.1 ~ "	25.1	26.2	29.2	25.6	29.0	27.8	40.8	57.4

□ 풍랑(2010년 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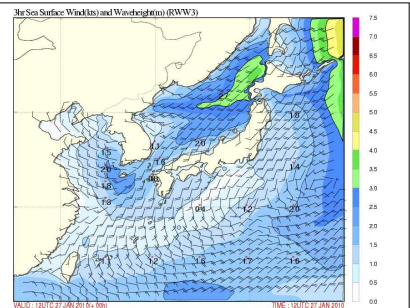
2010년 1월 27일 기압골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대기 상층과 하층에서 강한 남서풍이 불면서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졌음. 이 당시 통영시 국도 남방 6마일 해상에서 모래운반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음.



2010.1.27. 21:00 지상일기도



2010.1.27. 21:00 500hPa 일기도



2009.12.19. 해상풍과 파고

○ 2010. 1. 27. 지점별 관측자료

날짜	2010. 1. 27.															
	19시				20시				21시				22시			
관측요소	풍향	풍속 (m/s)	유의 파고	최대 파고	풍향	풍속	유의 파고	최대 파고	풍향	풍속	유의 파고	최대 파고	풍향	풍속	유의 파고	최대 파고
거제도부이	남남서	10.5	2.1	3.7	-	-	-	-	-	-	-	-	서남서	10.9	3.1	5.3
거문도부이	-	-	-	-	남서	12.4	2.4	3.4	서	13.0	2.7	4.2	서북서	11.0	2.5	3.3
매물도AWS	서남서	6.7	-	-	서남서	7.6	-	-	서남서	11.9	-	-	서남서	13.3	-	-
욕지도AWS	서	5.0	-	-	동남동	3.6	-	-	북서	7.4	-	-	서	3.7	-	-
간여암AWS	남남서	10.6	-	-	남서	10.5	-	-	서남서	10.6	-	-	서	9.0	-	-

○ 풍랑 재해 관련 기사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 침몰...10명 실종

어제(27일) 저녁 8시 반쯤 경남 통영시 국도 남방 6마일 해상에서 모래 운반선 삼봉호가 침몰해 타고 있던 선원 10명이 실종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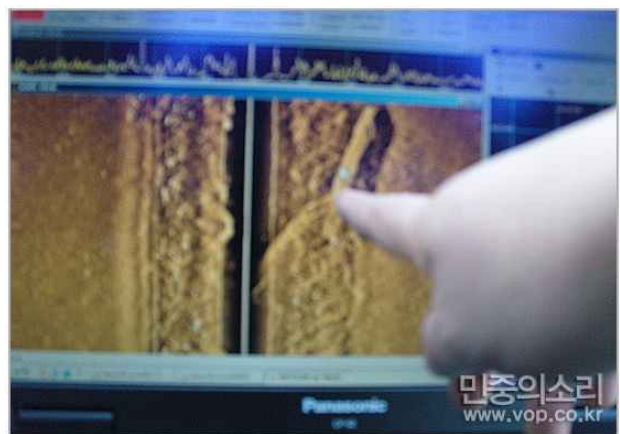
경남 통영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5시쯤 삼봉호가 욱지도 남방 28마일 해상에서 골재 채취를 하고 부산 신항으로 돌아오던 중 저녁 8시 25분쯤 뒤따라 오던 선박에 침몰 중이라는 무선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바다는 현재 초속 12~16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갈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파도도 3.5~4m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색기와, 경비정 5척을 동원해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현재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1.28. YTN

통영서 침몰한 모래운반선 수심 70m 밑바닥서 찾아



음파탐지기에 확인된 침몰 모래운반선 '삼봉12호'. 28일부산해경 관계자가 음파탐지기에 나타난 선박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10.1.29. 민중의소리